

아시아는 서울로  
서울은 아시아로

아시아의 시선과 기대가 서울에 물린다. 웅장한 축전의 광파르가 서울에서 세계로 울릴 것이다.

단군 개벽이래 반만년 만에 맞는 제 2의 개벽으로 온 겨레가 한 덩어리 되어 헤일 수 없을 만큼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여 온 86과 88.

그 제1장인 86의 장이 장엄하게 울랐다. 아시아의 30억 인구가 펼치는 젊음과 힘의 대제전 제10회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는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뜨거운 열사와 검은 원유의 지대 중동에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둘러싼 중앙아시아의 고원에서, 원시의 정글로 뒤덮인 작은 섬들에서, 시베리아의 찬 바람이 몰아치는 몽고의 고비 사막에서, 끝없이 지평선이 펼쳐지는 중국 대륙에서, 그 옛날 고구려의 무사들이 말을 몰고 독립투사들이 항일 투쟁을 벌이던 바람 찬 만주 벌판서 아시아의 1만 젊은이들은 유람선이 평화롭게 떠 있는 한강의 물결기가 굽이 도는 잠실벌에 모여 젊음의 대합창을 저 하늘 끝까지 울리도록 우렁차게 부를 것이다.

「아시아는 서울로, 서울은 아시아로」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오래 전부터 함께 내건 구호는 영원한 진진이다.

열 엿새 동안 잠실벌서 활활 타오를 땀불은 영원한 진진의 불길이고 푸르디푸른 가을 하늘 아래 우경과 대결속에 펼쳐지는 서울의 16

#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 국력 결집으로 선진국민 역량

일은 그대로 영원한 진진의 16일.

따라서 우리에게 이 기회는 어느 나라에서의 범상한 체육 제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 민족의 숙원인 선진 진입의 기틀을 위해 국력을 결집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올림픽 개최국민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86 서울아시아경기 대회는 물론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 할 3개분야의 챔피언 타이틀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동방 예의지국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질서」와 「보건 위생」 부문 등 3개 분야이다.

지난 7월 4일 양 대회 준비의 진척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강조하셨다.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타이틀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원래의 이 타이틀을 반드시 방어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질서와 보건 위생 측면에서도 챔피언이 되어야 하겠다.』

서울아시아 경기 대회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전 대통령각하의 이같은 강조사항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 각자는 생활 주변에서 크고작은 역할과 책임

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 대통령각하께서 강조한 3개분야의 메달 획득은 국민 각자의 협조와 앞장선 실천이 절대적인 전제 요건이기 때문이다.

3개 분야의 메달 획득을 위한 국민 자세는 우선 『우리는 올림픽 개최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확고할 때 구체적으로 생활화된다.

국민들이 합심할 때에만 획득할 수 있는 이 3개 분야의 금메달은 선수들이 획득한 스포츠 종목의 금메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당부를 계기로 새롭게 인식해야겠다.

### 국민역량을

#### 여기에 집중하자

역사를 통해 어렵고 큰 시련을 많이 겪어온 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에 치러낸 어려움들은 대개가 세제사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극복해 온 비극이고 어려움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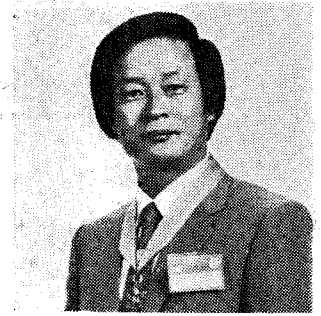
역사 앞에 피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그 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제 비로소 능동적 자세로 국운을 개척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국력을 총결집하고 그 결집된 역량을 발휘해 보는 기회로 맞게 된 것이 86 아시아 경기 대회

# 앞둔 우리의 다짐

## 발휘하는 기회되어야

강 태 욱

대진기계공업사 대표  
85년 동탑산업훈장 수상



이고 88 올림픽이다. 그러므로 올해의 아시아 경기대회는 88년의 올림픽보다도 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토록 뜻깊은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할 일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뜻으로 대동단결하는 일이다. 뜻을 함께 세우지 않으면 역량의 결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나」에 얽매어 연연하는 일이나 사소한 갈등과 마찰을 초월하여 「큰 우리」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갈등과 마찰은 힘의 결집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닌 힘을 적극적으로 낭비하기도 한다. 우리 세대에 부여된 선진 조국 달성의 과업은 있는 힘의 총결집으로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하물며 분열된 힘과 누수되는 기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룩하기 어려운 과업이다.

그러나 그 지난 장애요인을 물리치고 이루기만 한다면 민족사를 통해 한번도 맛보지 못했던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역사 앞에 비로소 능동적일 수 있는 경험을 누릴 기회와 만난 우리는 그러므로 행운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는 일로 우리는 영광스런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보상을 받게 된다.

『86년과 88년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묻는, 우리의 후손에게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도,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을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올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역할」을 깨닫고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슬기를 모으는 일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 선수들에게 환호와 갈채를

육상, 수영, 양궁, 배드민턴, 농구, 보울링, 복싱,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골프, 핸드볼, 하키, 유도, 조정, 사격, 탁구, 테니스, 배구, 역도, 레슬링, 요트, 태권도 등 25개 경기종목에 2백69개의 금메달이 저 잠실빌서 아시아의 새 챔피언을 기다리고 있다.

그속에 한반도서 발원하여 한인들이 세계의 스포츠로 힘들여 가꾼 전통 스포츠 태권도가 끼여 있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더 없이 자랑스럽고 흐뭇하기만 하다.

맑은 날, 갓은 날 가리지 않고 울창한 태릉의 숲 한가운데서, 양지 바른 진해의 언덕에서, 바람 거센 한라산의 기슭에서 기량과 기술을 갈고 닦아 온 한국의 젊은이들은 넓디넓은 아시아의 대지에서 찾

아온 하고 많은 이방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굳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도 좋다. 저 힘찬 도약, 의욕에 넘친 도전에 뜨겁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 되는 것이다.

아시아의 무대는 언제나 한국 스포츠에 희망과 자신을 심어 주었다.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의 벽에 부딪쳐 좌절하고 실망한 한국 스포츠는 언제나 아시아 무대의 금메달로 되찾고 재기했던 것이다.

그러기를 몇 차례 거듭한 끝에 드디어 몬트리올을 올림픽서 양 정모의 금메달이 터졌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서 금메달 노다지가 터진 것이다.

양 정모의 금메달, 로스앤젤레스 금메달 노다지가 싹트고 영근 무대가 바로 아시아 경기의 무대, 그 희망과 자신과 결실의 무대 아시아 경기 대회는 올 가을 서울서 한국에 어떠한 선물을 푸짐하게 안겨 줄 것인가.

가슴 부듯한 기대를 안고 86년 가을을 기다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 목이 터지도록, 손이 부르도록 환호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자.

저 힘차고 날쌌 도약이 좀 더 높 이 더 멀리 이르도록. <8>